Q1.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총 준비 기간은?

합격자 1
- 2학년 때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던 지인 선배가 졸업과 동시에 이 제도로 공무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선배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어 지역인재 제도를 준비하게 되었음.
- 1학년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4학년 동안 학과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음. 성적이 낮았던 1학년 과목은 재수강하는 등 성적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음.
- 지역인재 준비 기간은 전체적으로 3년 이상이며, PSAT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기간은 1년 반 정도임.

합격자 2
- 2023년 지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합격자 선배를 초청해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그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점, 그리고 PSAT만 통과하면 국가직 7급보다 세 과목을 덜 보고도 상대적으로 짧은 과정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음. 세종 지역은 작년 기준 84명이 면접을 보고 3명만 떨어졌을 만큼 면접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국가직 7급과 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었음.
- 2024년 2월에 졸업한 후 11월부터 3개월간 준비해 2025년 시험을 보았으나 불합격하였음. 이후 2025년 7월 국가직 7급 시험을 보고 싶어 2개월간 준비하였고, 다시 작년 11월부터 준비하여 올해 합격하였음.
- 기간으로는 1년이 조금 넘고, 실제 공부한 기간만 따지면 6~7개월 정도임.

합격자 3
- 학교 문자로 지역인재 합격자 설명회 안내를 받고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이 제도를 활용해 준비하면 좋겠다고 마음먹었음.
- 지역인재 선발에는 학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어 학기 중에는 학점 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필수 자격 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토익 점수도 미리 만들어 두었음.
- 총 준비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약 1년 2개월 정도임.

합격자 4
- 1학년 때 지역인재 설명회를 듣고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준비를 시작하였음.
- 재시로 합격했으며, 첫 시험 6개월, 두 번째 시험 6개월로 총 1년 정도를 휴학 없이 준비하였음.

Q2. 교내 추천 선발 과정과 준비 방법은?

합격자 1
- 지역인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학과 성적이기 때문에, 교내 선발에 대한 걱정을 덜려면 학과 성적을 잘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교내 선발 공고는 작년 기준 1월쯤 올라왔음.
- PSAT을 열심히 준비해 성적이 잘 나온다면 면접관님들도 그 자신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임.
- 그래도 헌법의 기본 내용은 알고 가야 하며, 간단한 상황 판단 퀴즈 문제 정도는 풀 수 있

도록 준비해 가면 됨.
- 작년 교내 면접에서는 최종 면접을 염두에 두셨는지, 공무원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을 실제 면접처럼 물어보셨음.

합격자 2
- 교내 추천서는 지역인재 제도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지도 교수님께 부탁드렸음. 교내 면접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지원 동기 등의 항목이 있어, 추천서도 그 내용과 어울리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렸음.
- 토익과 한국사는 지역인재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자마자 취득해 두었고, 4학년 졸업 후에는 교내 활동과 봉사 활동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내 면접 서류를 작성하였음.
교내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 정량적으로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성실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자소서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며 면접관에게 기본적인 호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된다면 하는 것을 추천함.
- 첫해 교내 면접에서는 PSAT 중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에 강점이 있다고 적어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 위주로 질문을 받았음.
- 올해 교내 면접에서는 인사혁신처 최종 면접과 비슷하게 지원 이유, 공직관, 공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딜레마 등을 물어보셨음. 예를 들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간단히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합격자 3
- 교내 선발 면접은 1월 중순쯤 진행되었음.
- 작년 설명회에서 상황 판단형 질문이 나온다고 들어 미리 대비해 갔음. 다만 교내 선발에 합격해도 PSAT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PSAT 공부를 중심에 두고 면접은 짧고 굵게 준비하였음.
-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저녁 식사 후 남는 시간에 틈틈이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였음. 지원서는 질문 틀에 맞춰 어필하고 싶은 역량(문제 인식 및 해결 능력, 소통력, 전문성 등)을 정해두고 작성하였으며, 완성 후 학과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았음.
- 추천서는 방학 중이라 학과장 교수님께 이메일로 정중히 부탁드렸음. 작성한 지원서도 함께 보내드렸더니 어필하고 싶은 내용을 잘 담아 작성해 주셨음.
- 면접은 자기소개, 지원 동기, 희망 부처와 그 이유, PSAT에서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준비해 갔음. AI를 활용해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자료 해석·헌법·상황 판단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할지도 구상해 보았음.
- 실제 면접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질문은 없었음. 되고 싶은 공무원상, 전공 수업 중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수업, 희망 부처와 그 사업이 필요한 이유, 진심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등 진솔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많았음. 마지막에는 조언도 해주시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되었음.

합격자 4
- 지도 교수님께 연락드려 추천서를 받았음. 추천서는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교수님께 말씀드려 두는 것이 좋음.
- 교내 면접은 자기소개와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등을 준비하였음.

Q3. PSAT·헌법 시기별 커리큘럼과 학원·교재 활용법은?

합격자 1
- 실전 감각을 위해 모의고사는 최소 세 번 정도 응시할 것을 추천함.
- 가장 긴장되는 1교시에 헌법과 언어 논리를 풀기 때문에, 언어 논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음.
- 헌법은 작년 시험이 어려워 과락으로 탈락한 분들이 많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불안하지 않을 만큼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함.
- 이번 시험이 2월쯤 치러질 예정이므로, 전년도 5월쯤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될 것임.

합격자 2
-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1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음.
- 헌법은 김유향 선생님의 기본 교재를 2회독하고 기출 위주로 공부하였음. 국제스포츠학부 전공이라 관련 개념이 부족해 헌법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했는데,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에 좋은 강의였음.
- PSAT은 언어 논리는 이하우 선생님, 자료 해석은 석치수 선생님, 상황 판단은 최원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으며 모두 기본 강의만 수강하였음.
- 학원 강의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들은 뒤 바로 심화 강의를 연달아 듣는 것은 지양함. 기본 강의를 마친 후 기본서를 숙달하고, 이후 심화 교재와 10년 치 정도의 기출을 보며 유형을 정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다만 사람마다 공부 기간과 학습 정도가 다르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학원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임.

합격자 3
- 1~2월: 자료 해석 기초
법률저널 5급 모의고사로 실력을 확인해 보니 자료 해석이 가장 부족해 자료 해석부터 시작하였음.
베리타스 조훈 선생님의 계산 특강과 기본(데뷔) 강의를 수강하였음. 이때 익힌 빠르고 정확한 계산법이 큰 도움이 되었음.
다음 시험부터는 배점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니 최신 연도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함.
- 3~6월: 언어 논리·상황 판단 기본 강의
언어 논리는 윌비스 박은경 선생님 강의로 근거를 찾으며 읽는 법을 익혔고, 부족한 강화·약화 유형은 베리타스 신성우 선생님의 유튜브 무료 강의로 보완하였음.
상황 판단은 윌비스 최원석 선생님 기본 강의를 수강했으며, 문제 패턴과 풀이 요령을 익혀 풀이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음.
- 7~12월: 기출 풀이 및 공부 방식 전환
처음에는 40문제를 한 번에 풀고 오답 정리를 했지만 점수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9월부터는 10~20문제씩 나눠 풀고, 한 문제당 2분 15초~2분 30초로 제한 시간을 두어 안 풀리면 바로 넘어갔음.
푼 직후 바로 오답을 확인하며 풀이 원리 적용 여부, 답의 근거, 실수 지점을 오답 노트에 정리했고, 이 방식이 성적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었음.
- 헌법

11월부터 윌비스 김유환 선생님 기본 강의를 듣고 기출을 병행했으며, 시험 직전까지 '헌법 OX' 앱으로 틈틈이 복습하였음.
- 2026년 1월~시험 직전: 실전 및 보완
학교 지원 법률저널 전국 모의고사를 주말마다 응시하였음(총 6~7회).
평일에는 5급 기출(10개년 4회독, 10개년 이전 기출 포함), 7급 공채, 민경채, 입법고시 기출을 시간 재고 풀었음.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풀이 원리대로 풀고 있는지, 다시 틀리는 문제는 왜 틀렸는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임.
막히는 문제는 해설서나 유튜브를 활용했고, 특히 실제 시간에 맞춰 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빈 사무관' 유튜브 채널이 가장 도움이 되었음.

합격자 4
- 인강으로 준비하였음. 스스로 논리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기초 입문 강의를 추가로 수강하였음.
- 한두 달 정도 인강을 듣고, 한 달간 기출문제를 풀었으며,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모의고사를 보며 실전 감각을 익혔음.

Q4. 인사혁신처 최종 면접 준비와 실전 팁은?

합격자 1
- 최종 면접은 1차 시험 합격 이후에 준비해도 시간이 충분함.
1차 시험은 과할 정도로 준비할 것을 권했지만, 인사혁신처 면접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음.
- 최종 면접을 준비하게 된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지도 교수님과 면담한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임하면 좋겠음.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변하면 됨.
- 너무 정형화된 답변보다는 조금이라도 창의성을 발휘해 자신만의 답변을 하는 것을 추천함. 창의적인 답변을 하려면 편안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므로, 실전에서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면접을 보기를 바람.

합격자 2
- 시험 결과 발표 후 3월 16일쯤부터 면접일인 4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해커스 피티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였고, 교대에 있는 인바스켓 면접 학원도 직접 다녔음.
- 면접은 경험 과제 10분, 상황 과제 10분, 개인 발표(PT) 30분 동안 답안을 작성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해 한 번에 면접을 보는 방식임.
- 경험 과제는 봉사 활동이나 여러 교내 활동을 해두면 더 유리함. 대부분의 지원자가 팀플 경험만 적어내기 때문에 좋은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올해 경험 과제는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직원이 소극적으로 행동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에 대한 질문이었음. 10분간 작성한 후 면접관 세 분이 차례대로 질문하셨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렇게 판단한 이유,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 역할 배분은 어떻게 했는지, 조언을 구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보셨음.
- 상황 과제는 일반적으로 정책적 딜레마가 있는 과제를 주고 어느 쪽을 택할지 작성하게 함. 올해는 동아리 지원금을 정액 지원금과 가액 지원금 중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음. 이 외에도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문

제가 상황 과제로 나옴.
- 개인 발표 과제 역시 정책 관련 문제가 나오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관한 문제였음. 정책의 우선순위, 어려운 점,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질문을 받았음.
- 면접은 오전과 오후 조로 나뉘어 진행됨. 오전 조였기 때문에 8시 30분쯤부터 대기하다가 8시 50분부터 바로 작성을 시작하였음. 경험 과제와 상황 과제를 10분씩 연달아 작성한 후 1~2시간 정도 대기했고, 마지막으로 개인 발표 과제를 30분간 작성한 뒤 바로 면접장으로 이동해 면접을 보았음.

합격자 3
- 필기시험 합격 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 피티윤 면접 강의를 수강하였음.
- 자신만의 답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 강의에서 알려주는 틀과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한 곳에 정리하고, 면접관이 자주 하는 질문도 모아 아예 외웠음.
- 경험 과제에 쓸 경험 4가지를 미리 정해두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음.
- 강의에서 제공하는 합격자 A급 답지를 보며 답변 방향성을 잡았음.
- 피티윤 선생님과 ZOOM으로 진행하는 피드백 시간이 총 4번 있었는데 그중 두 번 참여하였음. 부족한 점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으므로, 경험 과제 부분만이라도 꼭 한 번은 참여해 보기를 추천함.
- 면접 스터디는 주 1회씩 총 4번 정도 진행하였음. 낯선 사람 앞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처하는 연습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음. 다만 면접 준비의 핵심은 혼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습하는 것이므로 스터디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음.
- 7급 공무원 면접은 '내가 실제 공무원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시험임. 따라서 두루뭉술하고 거창하게 말하기보다 구체적이고 유연하며 명확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합격자 4
- 면접 학원에 등록해 다녔으며, 학원에서 지정해 준 스터디원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면접을 준비하였음.
학원에서 면접 이론 강의를 듣고, 면접에 맞는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점검받았으며,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에도 참여하였음.
- 실제 면접은 일반적인 형태의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리 답안지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았음.
- 실제 면접 질문 중에는 '동호회를 운영할 때 지원금을 정액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성과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Q5. 준비 기간 중 슬럼프나 점수 정체기가 왔을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합격자 1
- 점수가 정체되었을 때는 오히려 문제 푸는 양을 줄이고, 한 문제를 진득하게 붙잡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음.
- 찾아낸 방법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해 보고, 생각처럼 적용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을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구하였음.
- PSAT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라는 것을 착실히 따라가면서도 자신만의 요령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시험을 앞둔 6개월 정도는 술을 절대 마시지 않았고,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두뇌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음.
-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산책을 하며 '이 시험이 전부가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부담감을 덜려고 노력하였음.

합격자 2
- 시험별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큰 슬럼프나 정체기는 없었음.
- PSAT은 40문제를 90분 안에 풀어야 해 시간 압박이 상당히 심하고,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한 문제씩 시간을 재며 풀고, 이를 5문제, 10문제, 20문제, 40문제로 점차 늘려가며 문제 푸는 체력을 길렀음.
- 일주일씩 완전히 쉬어버리면 문제 푸는 감각이 리셋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만 푹 쉬거나 공부하면서 취미 생활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함.
- 시험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심해지므로, 새로운 모의고사 문제를 찾아 풀기보다는 최신 기출을 보며 이미 익힌 유형을 되짚어 보는 것이 마음을 다잡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데 가장 좋다고 생각함.

합격자 3
- PSAT을 처음부터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시험이 다가와서는 커트라인 안에만 들자는 생각으로 공부하였음. 세종 지역 커트라인이 평균 70점 정도여서 딱 그 점수만 넘기자는 목표를 세웠음.
-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막막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지금 그만둔다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음.
- 점수에 연연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2.5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음. PSAT은 한 문제당 배점이 커서 조금만 더 맞혀도 65점이 70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규칙적인 루틴과 확실한 휴식을 가져 큰 슬럼프 없이 공부를 함. 실제 공무원처럼 오전 8~9시에 공부를 시작해 저녁 6~7시에 마쳤고, 그 이후는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삼았음. '오늘도 루틴을 지켰다'는 성취감이 불안감을 많이 덜어주었음.
- 시험이 임박해서는 저녁까지 공부 시간을 늘리기도 했지만, 본인 상태를 보며 번아웃이 올 것 같으면 휴식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함.

합격자 4
- 나만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멘탈을 잡았음.
- 너무 힘들 때는 잠깐 쉬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면 극복할 수 있음.

Q6. 공채, 공기업 등 다른 취업 준비를 병행하셨나요?

합격자 1
- 7급 시험 준비 시간 배분과 관련해서는, 언어 논리가 가장 긴장되는 시간에 치르는 과목이므로 초반에 많은 시간을 들여 자신감을 얻어 두고, 나머지 과목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

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됨.
- PSAT은 스스로 공부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실제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이 권하는 시간 배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가기를 바람.

합격자 2
- 공기업 NCS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았고, 사기업 공채도 병행하지 않았음.
지역인재 7급은 국가직 7급 PSAT보다 조금 더 어려운 5급 PSAT 문제를 풀어야 함. 따라서 -PSAT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점수를 올리기 굉장히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 지역인재 7급을 꼭 하고 싶다면 온전히 PSAT에만 집중하는 것을 추천함.

합격자 3
- 공기업 NCS나 다른 공채를 본격적으로 병행하지는 않았음.
- PSAT형 NCS는 5급 PSAT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문제의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7급 공채나 민경채가 5급 PSAT과 더 유사하다고 느꼈음. 그래서 시험 준비 시 7급 기출과 민경채 문제도 많이 활용하였음. 5급 기출 중 10개년 이전 기출도 문제 퀄리티가 매우 좋음.
- 다만 만약을 대비해 공기업을 준비한다면 어디가 유리할지, 7급 공채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정도는 심리적 대비 차원에서 알아보았음. 그래도 항상 마무리는 지역인재 7급에 꼭 합격하자는 다짐으로 이어졌음.

합격자 4
- 첫 시험 때는 은행 공채, 공기업 준비와 병행했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음.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때는 PSAT만 공부하였음.

Q7. 준비 과정에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합격자 1
-첫해에 운 좋게 교내 추천을 받아 시험을 보았으나 두 문제 차이로 불합격하였음. 모의고사나 혼자 문제를 풀 때 점수가 잘 나와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면 딱 떨어질 만큼만 공부했었다는 생각이 듦.
- 집에서 푼 점수에 0.7을 곱한 점수가 실제 시험장에서 받는 점수라고 생각하면 정확함.
- 아쉬운 점은 첫해에 좀 더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 못한 것이고
- 잘한 점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시험은 필요한 것의 1.5배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한 것임.
덕분에 실제 시험장에서 첫 과목 때 상당히 긴장했음에도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음.
- PSAT은 적당히 공부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최대한 과하게 준비하기를 바람. 다만 과하게 준비하라는 것은 무작정 공부 시간을 늘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시험장에 데려간다는 의미임.

합격자 2

- 잘한 점은 교내 활동과 봉사 활동을 해둔 것으로, 교내 면접과 인사혁신처 최종 면접 서류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되었음.
- PSAT에서는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에 강점이 있고 언어 논리가 약점이었는데, 언어 논리 위주로 공부하며 약한 과목의 점수를 끌어올린 것이 잘한 점이라고 생각함.
- 아쉬운점 1: 합격만 하자는 생각으로 커트라인에 맞춰 공부했는데, 첫 시험 때 막판 컨디션 관리를 잘하지 못해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불합격하였음. 다시 시험을 본다면 커트라인만 넘기자는 마음보다 좋은 성적을 받자는 마음으로 공부할 것임. 좋은 성적을 받으면 최종 합격 후 원하는 부처를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후회가 남음.
- 아쉬운 점 2: 헌법을 12월부터 늦게 시작한 것임. 60점만 넘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음. 헌법은 25분간 본 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언어 논리를 90분간 이어서 보기 때문에, 헌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 언어 논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헌법을 64점 정도로 겨우 넘겨 언어 논리를 볼 때 큰 타격이 있었기에 이 부분이 아쉬웠음.

합격자 3
잘한 점
- 자기 객관화: 단순히 공부 시간을 채우기보다 오늘 한 공부가 실제로 점수를 올려주는 공부였는지 계속 되돌아보았음.
- 노트 정리: 자주 하는 실수를 머리로만 오답하면 휘발되기 쉬워, 자주 하는 실수와 시험장에서 되새길 전략을 노트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음. 예를 들어 언어 논리에서 선지의 주어·목적어·서술어 모두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목적어를 빼먹고 정오를 판단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런 실수를 노트에 적어두고 여러 번 보며 되새겼음.
- 실전 연습: 낯선 장소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응시하며 자신에게 맞는 문제 풀이 순서와 선지 보는 순서를 정립했고, 풀 문제와 버릴 문제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렀음. PSAT은 정석대로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 요령을 써서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히는 것이 중요함.
- 아쉬운 점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을 무작정 따라 한 것임. 맞는 공부법을 찾기도 전에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아쉬움. 사람마다 점수가 오르는 공부법은 제각각이므로, 남의 방식을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공부 방향을 과감히 바꾸는 자세가 중요함.

합격자 4
- 잘한 점은 한국사와 토익을 미리 준비해 둔 것임.
- 아쉬운 점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 경우를 대비하지 못한 것임.

Q8. 도전을 앞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합격자 1
- 지역인재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며, 평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온 의욕 넘치는 학생들의 열정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함.
- 주변의 응원도 중요하지만 나를 가장 진심으로 믿고 응원하며 실제로 시험장까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도전을 믿고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해 주기를 바람.

합격자 2
-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슬럼프가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람.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험이므로,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음.
-계속 반복하지만 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음. 같은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지만 같은 유형은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을 충분히 공부하면 처음 보는 문제에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음.

합격자 3
- PSAT 입문을 고민하는 학우들은 먼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정말 원하는지, 어떤 부처에서 일하고 싶은지부터 고민해 보기를 바람. 꿈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일수록 준비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됨.
-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 여부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져 좌절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결국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함. 점수를 올릴 방법과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리했던 시간들이 시험장에서 빛을 발해 합격으로 이어졌음.
-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커트라인 안에만 든다는 생각으로 버텨내기를 바람. 머지않아 공직에서 동료로 만나기를 기대함.

합격자 4
- 지역인재 제도는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합격할 수 있음.

추가질문

Q1. 교내 실시 모의고사 백분위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합격자 1

-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법률저널 모의고사와 랩 스탠다드 모의고사를 병행하며 총 8번 정도 응시하였음.
- 법률저널 모의고사에서는 상위 14.7% 정도의 성적을 받았고, 석차로는 10등 정도였음.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상위 15% 이내의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였음.
- 지원하는 직렬 내에서 상위 30% 안에 든다면 괜찮을 것임.

Q2. 1학년이 지역인재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합격자 1

-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은 매우 좋음.
- 학과 성적을 잘 관리하면서 실제 시험에 응시해 보고, PSAT 공부는 3학년쯤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됨.

Q3. PSAT 커트라인과 지역인재 7급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합격자 1

- 다음 지역인재 카페에 가입하면 예전부터 올해까지의 합격 커트라인을 확인할 수 있음.
- 작년 전국 커트라인은 197.5점, 서울은 225점이었음. 세종은 전국 커트라인이 적용되었지만 실제 합격자 중 가장 낮은 점수는 202.5점이었음.
- 전국 커트라인을 넘겨야 지역 내에서 국가직 면접 기회를 받을 수 있음.

Q4. 모의고사 백분위가 잘 나오면 교내 면접에 유리한가요?

합격자 1

- 모의고사 백분위가 잘 나오면 유리하긴 하겠지만, 백분위를 직접 보여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그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면접에서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함.
- 교내 면접은 지원자 중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학생을 추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백분위 자체보다 얼마나 잘 준비했고 다른 지원자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함.

Q5. 국가직 7급 PSAT과 지역인재 7급 PSAT은 문제 구성이나 난이도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합격자 1

- 국가직 7급은 7급 PSAT과 전문 과목 4과목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를 들어 일반행정직은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공부할 양이 매우 많음.
- 지역인재 7급은 이번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이 응시했을 때는 7급 응시생들과 함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5급 1차 시험을 함께 보았음. 5급 응시생은 1차 이후 2차, 3차 시험이 남아 있지만, 지역인재 7급 응시생은 5급 1차만 함께 보고 바로 면접으로 넘어가는 구조임.
-지역인재 7급은 5급 PSAT을 보기 때문에 5급 기준으로 문제를 준비해야 하며, 7급 PSAT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함.

Q6. 시험을 졸업 전에 준비하셨나요, 졸업 후에 준비하셨나요?

합격자 1
-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4학년 때 학교를 다니며 준비하였고, 휴학이나 졸업 유예는 하지 않았음.
- 4학년 말에 교내 추천을 받고 2025년 2월에 졸업한 뒤 2025년 3월에 첫 시험을 보았고, 졸업 후 2026년 3월에 한 번 더 시험을 보았음.

Q7. 교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공직 적합성만 어필했나요, 아니면 희망 부처와 합격 후 맡고 싶은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작성했나요?
합격자 2
- 교내 면접 서류 작성 시, 구체적으로 희망 부처를 정하고 이를 자신의 공직관 및 경험과 연계하였음.
- 예를 들어 국제스포츠학부 전공을 살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가고 싶다고 적었음. 이를 바탕으로 여자 축구부 프런트로 활동하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자 축구부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했던 경험,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대회를 열었던 경험 등을 연계해 작성하였음.

합격자 3
- 자기소개서는 7급 공무원의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한 문제 인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소통력, 전문성을 한 문항당 하나씩 녹여 작성하였음.
- 전문성 문항에서는 통일외교안보학 전공을 어필하면서 희망 부처도 전공과 관련된 부처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해당 부처 기자단 활동 경험을 함께 어필해 전문성을 더 드러내려고 하였음.
- 교내 면접에서 희망 부처나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준비해 갔으며, 희망 부처와 희망 부서 정도까지 생각해 갔음.
- 실제 교내 면접에서는 전공 수업 중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수업, 희망 부처와 그 부처에 해당 사업이 필요한 이유 등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음.

Q8. 학점, 자격증 급수, 토익 점수 등 정량적 수치가 궁금합니다.
합격자 2
이중 전공을 포함한 전체 학점은 4.38이었고, 백분위로는 상위 6~7% 정도였음.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스포츠경영관리사를 취득하였으나, 교내 면접이나 이후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토익 점수는 870점이었음.
합격자 3
학점은 앞선 합격자와 같은 4.38이었음. 학과 특성상 인원이 적어 학과 1등을 해야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자격증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만 취득했고, 토익은 한 번 응시해 받은 800점으로 제출하였음.
자격증이 2급이라고 해서, 혹은 토익이 기준 점수를 딱 맞췄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기본 요건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됨.

Q9. 학점을 유지하기 위한 본인만의 수강 신청 전략과 학점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합격자 2

학과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함.

학과 수업 중 가끔 영어 강의가 있었는데, 영어에 자신이 없어 과감하게 배제하였음.

팀플 발표가 있는 수업은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이나 보고서 위주의 수업으로 시간표를 채우려고 노력하였음.

교양 과목을 들을 때도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수강하였음.

합격자 3

자신에게 A+를 주신 교수님의 수업을 모두 찾아 들었음. 확률적으로 다음 수업에서도 A+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시험 스타일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임.

영어 강의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시험도 영어로 써야 해서 최대한 피하고, 졸업 요건만 맞추었음.

학점을 높게 받으려면 최대한 결석하지 않아야 하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챙기려고 노력하였음. 예를 들어 질문하면 점수를 주는 수업에서는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기말고사로, 강의 자료를 통째로 외웠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보았음.

1회독 때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위주로 노트북에 정리하였음. 단순 요약이 아니라 주관식에 나올 만한 내용은 번호를 매겨 한눈에 보이게 적고, 객관식에서 놓치기 쉬운 단어는 강조 표시하였음. 이렇게 하면 PPT 10장 분량의 강의 자료가 A4 용지 한두 장에 담기기도 함.

정리한 자료를 한두 번 보며 외우고, 허공을 보며 외워졌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주관식과 객관식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임.

Q10. 희망 부처를 선택할 때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나요?

합격자 2

-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그 외에 승진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초과 근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도 모두 고려하였음.

공- 무원이 되면 앞으로 30~40년간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처가 자신의 적성에 가장 잘 맞는지 미리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경험을 쌓도록 노력하면 좋겠음.

합격자 3

- 통일외교안보학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부처를 선택하겠다고 마음먹었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것도 원하는 부처가 있었고 그 부처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임.
- 아직 어느 부처에 가고 싶은지 고민 중이라면, 여러 부처가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라도 살펴보고, 평생 직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확인해 나가면 좋겠음.

Q12. 준비에 불안함이 있는데, 내년 1월에 바로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내후년에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합격자 2

- PSAT 점수가 60~70점 사이 정도 나온다면 내년 1월에 바로 도전해 봐도 좋음.
- 반면 단순히 경험 삼아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이라면, 지금은 봉사 활동 등 여러 경험을 쌓으며 준비를 더 확실히 한 뒤 내후년에 도전하는 것이 좋음.

기회가 두 번뿐이기 때문에 경험 삼아 도전하느라 기회를 날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함. 1월

까지 열심히 공부해 보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도전해 보아도 좋을 것임.

합격자 3
- 지역인재 시험 기회는 총 두 번이기 때문에, 한 번을 불안감 속에서 허무하게 날리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함.
-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도 바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은 매우 적음.
- 지금 모의고사나 기출을 풀어보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진입할 만하다 싶으면 공부를 더 해본 뒤 교내 선발 공고가 떴을 때 불안감이 사라지고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합격자 4
- 필기가 가장 큰 관문이기 때문에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PSAT에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을 추천함.

Q13. 지역인재 7급 합격을 위해 PSAT 외에 준비하면 좋은 것이 있나요?
합격자 3
- 지역인재 7급 합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PSAT이며, 다른 요건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느낌이고 PSAT이 가장 큰 관문이라고 생각함.
- 그 외에 준비할 것을 꼽자면 다양한 활동을 추천함. 1학년 때 교내 봉사단, 3학년 때 교환학생, 4학년 때 부처 기자단 활동을 하였음.
이러한 경험을 교내 면접과 공무원 면접에 잘 녹여낼 수 있었음. 특히 공무원 면접에는 자신의 경험을 적는 문제도 있음.
- 가장 추천하는 것은 봉사단 활동임. 교내 봉사단은 봉사 기획부터 활동까지 스스로 해야 해서 자소서나 면접에 녹여낼 요소가 많았음. 이런 점에서 직접 기획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을 추천함.
- 팀플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면접에 적는 수험생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면 활용해도 충분함.

Q14. 봉사활동 시간이나 내용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합격자 4
합격에는 영향이 없음. 면접에서 사례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Q15. 어떤 학과·교내 활동을 하셨나요?
합격자 4
-멘토링 활동, 수업 질문 조교, 교내 공모전 등을 하였음.
이러한 활동은 교내 선발 자소서를 쓸 때 편했지만, 합격에 큰 이점이 되지는 않음.